

죽이지도 않은 자에 대한 책임





이 혼 주

- 인제대 국문과 4학년
- '95 부산일보 신춘문예, 희곡부문 당선
- 부산창작극 연구회 회원

고맙습니다. 지난 가을, 막 한 번 못 올리고 망쳐버린 우리 국어국문학과 연극을 대신합니다. 우리는 갈수록 많은 것을 아 니, 모든 것을 요구하는 연극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작에 손을 떼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동안 나의 주인공들은 죽어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팔을 가만히 내려뜨린 채 숨조차 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죽었거 니, 그들은 사라졌거니 게다가 그들은 제대로 존재하지도 못했 으니까 뭐 하나 남길 것도 없었습니다.

하나, 둘, 셋 오늘에서야 그들은 손가락 하나를 꼼지락거 리며 얇은 숨을 내 쉬었습니다. 하나, 둘, 셋. 그들은 곧이어 눈 을 뜨고 자리에서 일어나 노래를 부르고 자신의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들을 대신해서 전하는 말입니다.

— 1995년 1월 4일 신춘문예 당선소감

그후로 꼬박 열한달을 기다려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젠 할말이 없습니다.

말은, 막이 오르면 나의 주인공들이 할 것입니다.

내가 그들이고, 그들이 나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995년 12월

이 혼 주



최 향 운

• 94, 경성대 대학원
연극영화학과 수료

시작이란 언제나 설레임과 그 만큼의 두려움을 동반합니다.

‘무언가를 만드시 ...’

‘과연 표현이 될까?’

망설임속에 저의 시작은 시간만 축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도전하려고 합니다.

아직은 젊기에 무지함과 무례함으로 갈등을 밀어내고 오늘,
저의 작은 소품을 보이고자 합니다.

뻔뻔스럽지만 당당히 외쳐보겠습니다.

봐 주십시오. 저희들의 연극을.

다만 미숙함을 보지마시고 가능성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初者인 저에게 작품을 건네준 이흔주씨에게 감사드리며,
무진장 고생하고 한 장의 지면도 할애받지 못한 저의 배우들에게
무한한 情을 보냅니다.

작가 이훈주씨는 <죽이지도 않은 자에 대한 책임>이란 작품에서 인간이 살아가야하는 이유와 책임에 대하여 조금은 허무적인 시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녀가 툭 던져놓은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다름아닌 자신들의 “별”을 위해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별이 빛나는 것은 우리가 언젠가는 자신의 별을 찾아가도록 하기 위함일까? ……”

그렇다. 살아가는 이유 하나!

별!

어린왕자는 B-612를 떠난다. 세 개의 분화구와 한송이의 장미꽃을 남기고 ……

노오란 풍선! 아이의 손에서 놓여진 풍선처럼 어린왕자는 그의 별을 놓아버린다. 그는 몰랐다. 자신의 별로 돌아가는 길을.

여행 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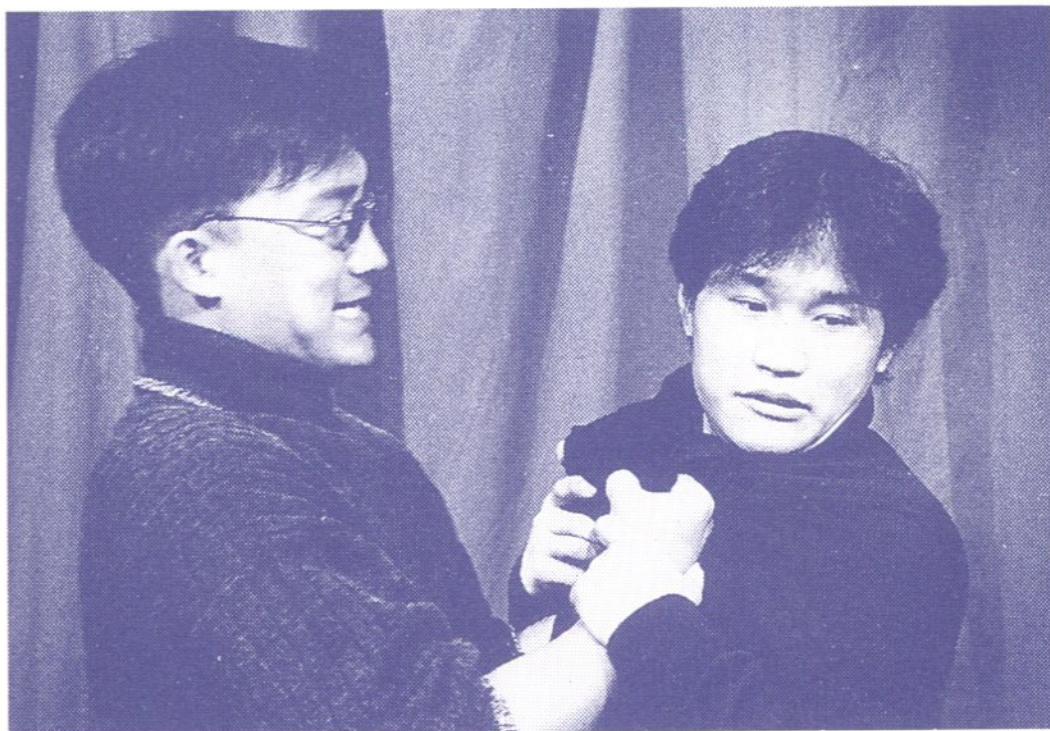
별을 다시 찾고 싶어하는 왕자에게 지리학자는 표정없이 한마디 던진다. “난 몰라” 자신의 역할에만 한정되어 남을 생각할 줄 모르는, 자기식대로의 방법론만이 유일하다고 생각하는 커뮤니케이션이 파괴되어버린 현대사회의 인간들! 지리학자는 그런 존재다.

왕자는 다시 사막을 찾는다. 그를 맞이하는 건 뱀이다. 뱀은 제시한다. “난 알고 있어. 난 너를 어떤 배보다도 멀리 데려가 줄 수 있어” 뱀은 죽음으로 왕자를 유혹한다. 뱀의 죽음은 소멸이다. 뱀에게 유혹당하면 육체와 영혼 둘 다 파괴되어버릴 수 밖에 없다. 사라지는 것이다. 영원히 …… 뱀은 별로 가는 길을 제시하지만 그건 종말일 뿐이다.

결국 어린왕자는 뱀의 유혹에 몸을 건넨다. 하지만 어린왕자가 선택한 죽음은 뱀의 유혹과는 다르다. 물리적인 수단에 의해 왕자를 별로 인도하고자 하는 비행사에게 왕자는 이렇게 말한다.

“내가 죽는 것 같이 보이더라도 정말 죽는 건 아니예요 …… 몸이 함께 갈 순 없다구요. 이 몸은 너무 무거워요. 몸은 버려진 조개껍질이 될꺼예요. 낡은 조개껍질을 보고 슬퍼할 사람은 없는거예요.”

왕자는 뱀이 소멸로 이끌고자했던 죽음을 육체로부터 영혼을 해방시키는 자유로의 통로로 승화시킨다. 어린왕자는 스스로 누군가의 별이 되는 것을 택한다. 자신이 별을 잃었다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한 별이 되고자 한다.



소설가는 젊은 날의 순수를 잃어버리고 현실에 영합해 외설잡지에 거지같은 소설을 적으며 삶을 이어가고 있다.

그에게도 한 때는 어린왕자와 같은 순수한 영혼으로 자신의 별을 찾아가려는 의지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결

국 별로 가는 길을 찾지 못하고 질척이는 생활을 지속할 뿐이다.

사장이 소설가의 목을 계속 조르려고 할 때 그의 아파트에 동해라는女子가 찾아온다. 동해는 소설가의 순수했던 시절을 알고 있으며 그 소설가의 작품에 의해 죽음이라는 인생의 결론을 내린 수희의 가장 절친한 친구이다. 동해는 소설가에게 수희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변해버린 그를 질책한다.

이러한 동해의 등장으로 소설가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며, 결국 동해가 다시 죽음으로 내몰려지는 상황에서 그는 자신의 별을 찾아가려는 의지를 갖게되며, 그의 치욕스런 작품들을 불에 태워버린다.



동해는 소설가의 내면이다. 그래도 남아있는 순수에 대한 미련인 것이다. 동해 역시 어린왕자처럼 뱀의 유혹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육체를 지울 뿐 결국 그녀의 죽음은 어린왕자의 죽음처럼 다른 사람의 별이 되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이 동화와 현실의 세계는 '죽음'이라는 제의적인 장치에 의해 정리되어진다. 어린왕자는 '죽음'을 통해 육체의 자유를 얻어 자신의 별로 완전히 돌아가진 못하지만 그 자신이 별이 되어 또다른 희망적인 세계를 열어준다.

동해의 죽음역시 소설가의 내면에 있는 갈등을 종식시켜주는 구실을 한다. 소설가는 동해의 죽음을 통해 별에 대한 자각이 일깨워지고 순수라는 자신만의 별을 찾으려는 의지를 되찾는다.

이 작품에서의 죽음은 물리적인 현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자신의 진정한 생을 찾기위해 치뤄야 할 하나의 '통과의

례'인 것이다.

이 작품을 통해 우리는 과연 자신은 '별'을 갖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하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사고의 과정을 가지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하늘을 보라! 우린 별을 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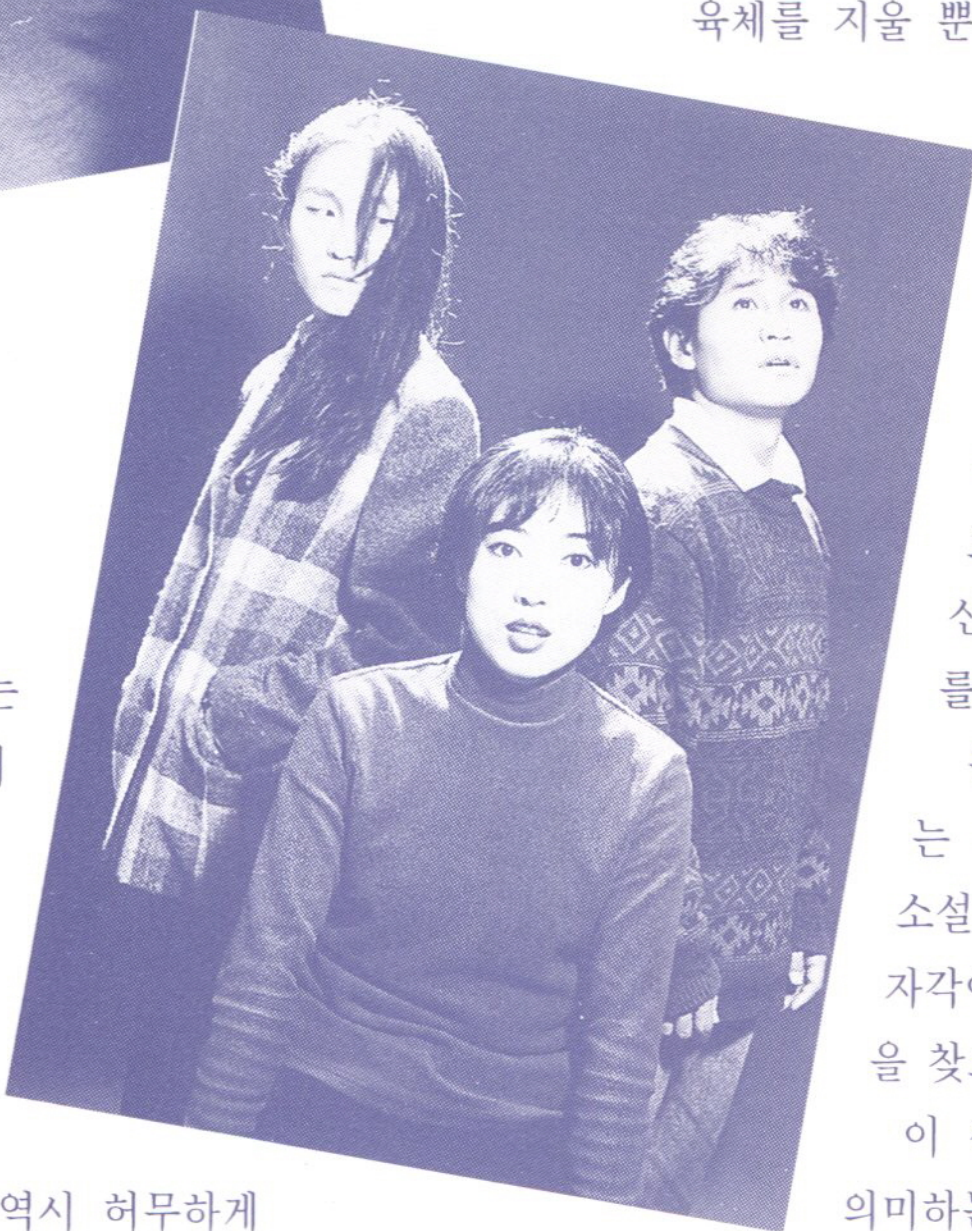
이 작품은 이중적인 구조를 갖는다.

먼저 어린왕자, 지리학자, 뱀, 비행사가 꾸미는 동화적인 공간. 이들은 동화속에서 소설가의 과거와 내면의 세계를 상징한다. 한때 순수문학을 지향했던 소설가가 답답한 사회구조의 틀, 현실의 냉혹함에 의해 그 영혼이 죽어버리는 ...

다른 하나는 소설가, 사장, 동해 그리고 수희가 꾸미는 현실의 공간이다. 순수를 지키기엔 너무나도 공허한 세상에 대한 소설가의 한탄이 역시 허무하게 웅얼거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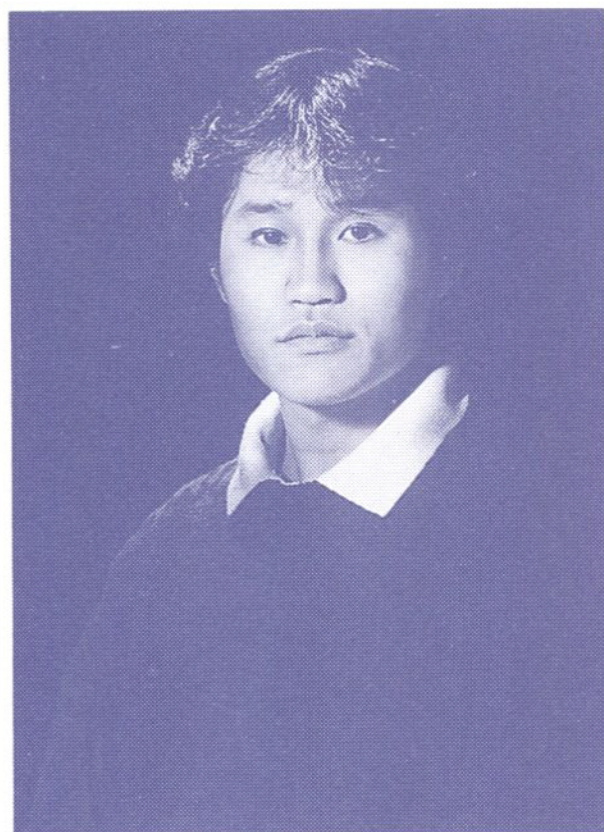
현실세계의 구성은 동화세계와 동일한 구성을 가짐을 알 수 있다. 우선 '어린왕자=소설가=동해'라는 공식이 성립된다. 어린왕자가 지리학자, 뱀, 비행사를 만나는 과정은 소설가가 사장과 동해를 만나는 것과 일치한다.

다시말해 어린왕자의 자취는 소설가의 과거라고 할 수 있다. 소설가 역시 지리학자를 만나 별의 행방에 체념하고 뱀의 유혹에 빠져 영혼을 잃는다. 현실세계조차 그를 사장이라는 마수에 던져버리는 비정함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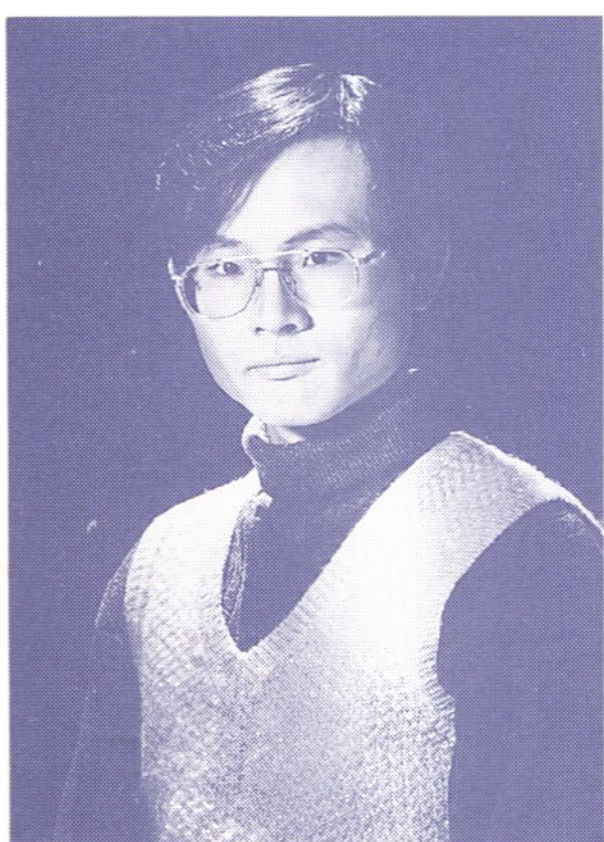
어린왕자 / 변미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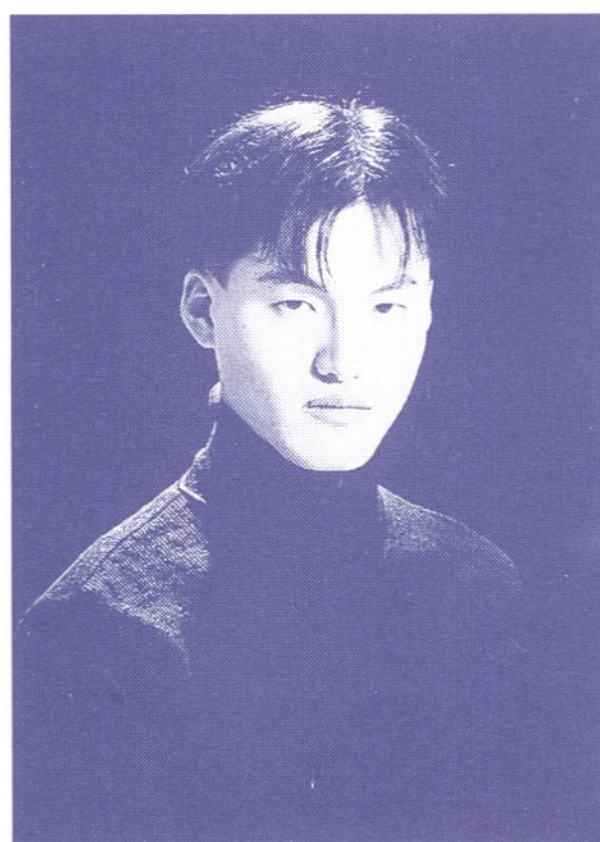
소설가 / 오치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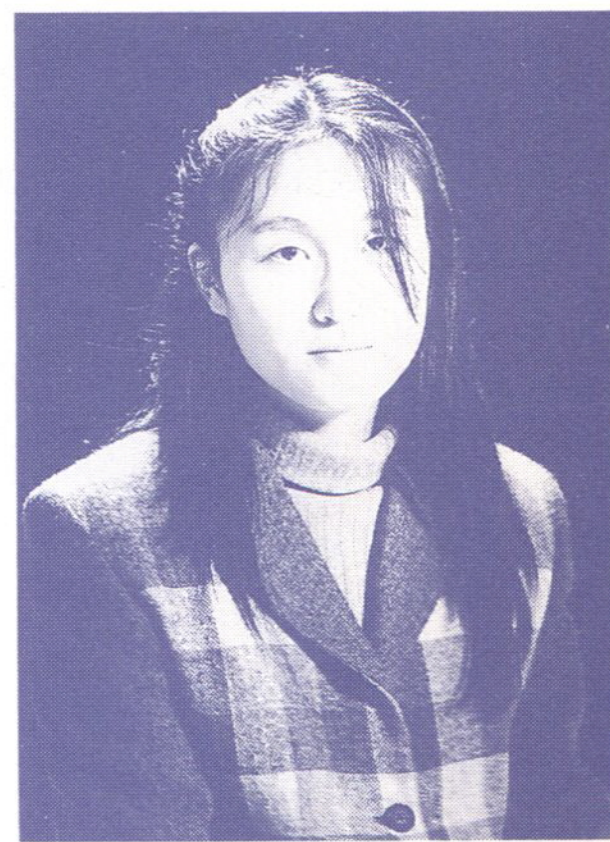
사장·비행사 / 하재형



지리학자 / 유윤영



뱀 / 정승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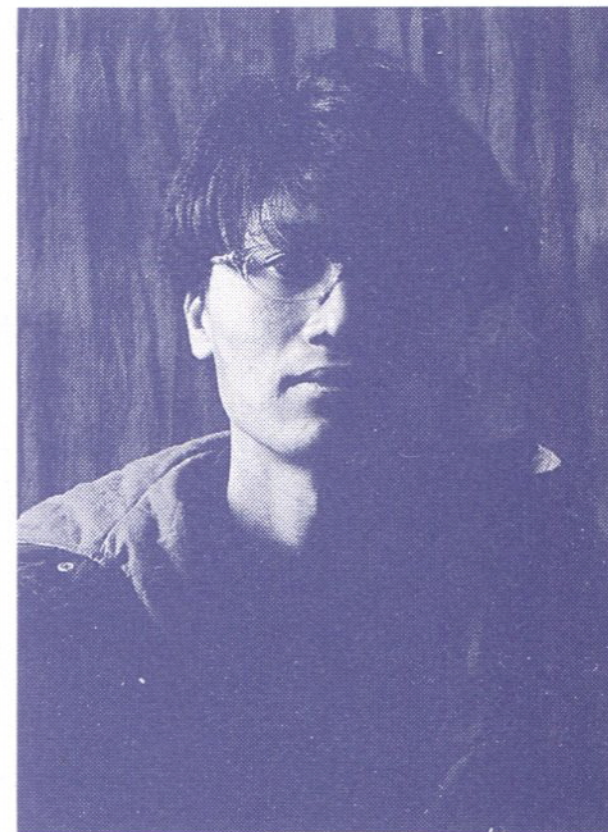
동해 / 신영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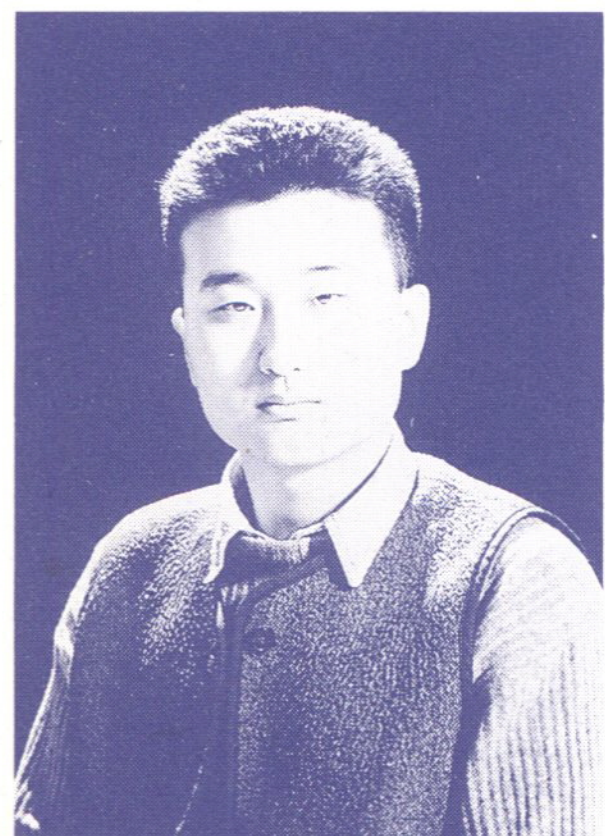
제작 / 김문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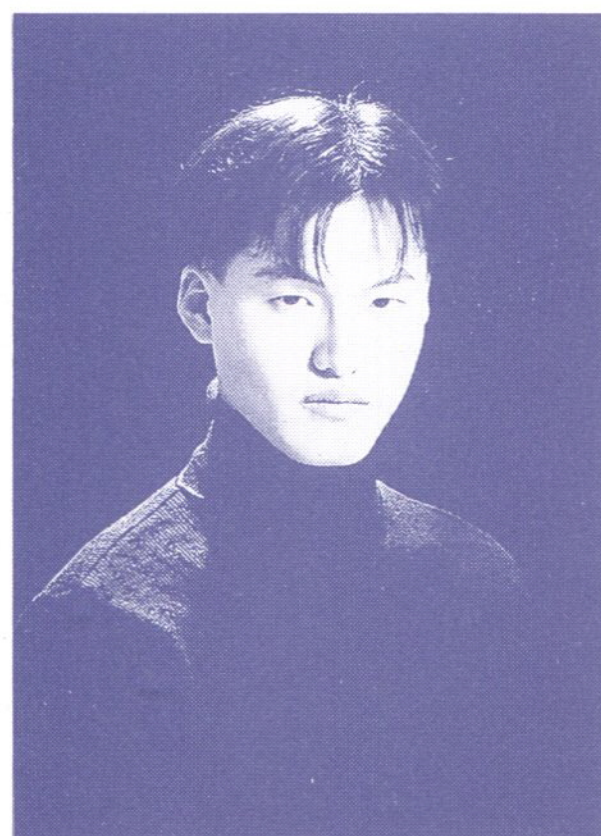
기획 / 이성규



조명 / 최재훈



음향 / 박홍석



무대미술 / 정승재

홍보, 진행 / 부산창작극연구회
회원 여러분